



88년 美國의 大統領선거는 최근 예비선거가 끝남에 따라 共和黨 후보 조지 부시 부통령과 民主黨 후보 마이클 뉴카리스 매사추세츠州知事와의 경합으로

압축되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시가 당선될 경우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레이건정책이 답습될 것으로 예상된다.

美國대통령후보의 에너지정책 비교

	부 시(共和黨)	듀카리스(民主黨)
石油輸入稅 Windfall profit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대(美경제에 逆効果 초래)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대(年間 50億달러 부담초래) 폐지
전략石油비축 ANWR 개발 海底石油개발 石油探査·개발촉진을 위한 租稅 인센티브 天然ガス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대(국가에너지정책에 중요) 찬성 찬성(OCS leasing 계획 지지) 제공(레이건은 반대입장) 찬성(포괄적 규제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대(750백만배럴로 증대) 반대(환경보호 강조) 반대(OCS leasing 중단) 제공(단,陸上지역 탐사·개발의 경우) 찬성(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접협상 장애요인 제거)
天然ガス 개발·이용 Clean coal 기술개발 原子力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이용 확대 추진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확대 原電건설 지지 電力社의 긴급피난계획에 주정부와 현지주민이 반대할 경우에도 licensing 발급 Nevada에 原子力폐기물 처리장 건설 Seabrook 原電 가동승인에 찬성 보급촉진, 대체연료선택 시장자율에 맡김, 대체연료 자동차 생산자 적용 연료경제규제 완화 등 지속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이용 확대 추진 연방정부 자금지원 原電건설 반대 原子力폐기물의 안전처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原電건설 반대 原電사고시 原電社의 책임한계 폐지 Seabrook 原電 가동승인 반대 보급촉진
수송용代替燃料보급 에너지절약·新再生 에너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절약예산 15% 증대 자동차 연료경제규제 현행 26mpg에서 50mpg로 강화 新再生에너지, R&D예산으로 3~4억 달러 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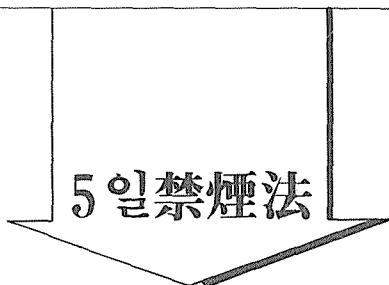
반면 듀카키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상당한 정책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부시는 경제정책에 있어 예산감축, 増稅반대, 교육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듀카키스는 정부지출억제, 脱稅방지, 증세 가능 및 중소기업의 수출촉진등을 주장하고 있다.

부시와 듀카키스는 에너지정책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시는 自由市場원칙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듀카키스는 부시보다 정부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시는 레이건정책의 에너지정책을 근간으로 수송용 代替연료 보급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듀카키스는 原電건설에 반대하는 대신 에너지절약과 新再生에너지 개발·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는 ANWR(북극야생동물 보호구역) 개발, 海底石油개발, 石油탐사·개발촉진을 위한 租稅인센티브 제공 및 原電건설등에 대해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부시는 上記의 이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듀카키스는 ANWR 개발과 海底石油개발에 대해 환경 및 漁場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原電건설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租稅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陸上지역의 탐사·개발에 대해서만 찬성하고 있다. 한편 두 후보는 石油輸入稅 반대, Windfall Profit tax 폐지, SPR 증대, 天然가스 개발·이용확대, Clean coal 기술개발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시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現 레이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듀카키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상당한 에너지정책변화가 예견된다. 에너지절약과 新再生에너지개발은 활성화될 것이나 原子力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㊂〈에너지 동향〉



생체실험을 통해 담배의 해독을 설명하는 새로운 금연법강좌가 한국보건교육진흥회 주최로 지난 5월19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렸다.

영상매체에서 나아가 생체실험까지 동원한 이 강좌에서 금연운동가인 琴東宇씨는 『담배의 니코틴은 극악과 같이 해로운 물질』이라고 설명하고 솔담배 2개비에서 추출한 니코틴과 타르를 닦에 주자, 3분만에 닦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날 琴씨는 금연의 방법으로 「5일금연법」을 제시했다. 琴씨는 흡연자가 금연을 하려면 첫째 금연 결심을 유발시키고 둘째 흡연으로 찌든 신체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 건강식이요법 물마시기 심호흡 등을 하며 세째 담배를 끊어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5일금연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일=담배 한두갑 상당값의 과일이나 과자

등을 사서 아내 자녀들에게 주고 가족들 앞에서 재떨이 라이터등을 없앤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내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연하기로 했다』고 생각하고 부엌으로 가서 따스한 물을 마신다. 아침식사후 곧 일어나 5분간 산책하고 심호흡을 한다.

직장에서는 「금연」을 반복해 말하면서 물과 주스만을 마시되 저녁에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 제2일=24시간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냉수마찰을 하고 현미밥을 먹는다. 담배가 생각나면 물이나 주스를 마시고 『나는 금연을 택했다』고 다짐한다. 저녁 밥은 되도록 간단히 먹고 신문이나 TV를 보지 않는다.

△ 제3일=금연의 일반적 동기를 생각해본다. 보다 나은 건강, 단란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로 생활을 지배해야겠다고 마음 먹는다.

△ 제4일=부지중 한개비 꾀웠다해서 그것을 구실로 금연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나는 담배를 끊어야 애를 쓰는 친구를 격려해야겠다』고 다짐하고 흡연은 이기적인 욕망을 종족시키는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 제5일=일찍 일어나 냉수마찰을 하고 알콜성 음료나 커피를 피하고 신선한 야채 과일을 먹는다.